

# 2022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2021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백신접종 속도의 빠른 하락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연되었다. 세계 경기 둔화로 국내경기도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향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 어떤 산업이 새롭게 부각될지 알아보았다.

## 코로나 확산에 따른 등락 보이다가 2022년 하반기 이후 하향세로 선회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증시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1년 투자자들의 골칫거리였던 공급 병목 현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2022년 하반기 미·중 정치 이벤트,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또다른 걱정거리가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발간한 2022년 증시전망에 따르면 코스피지수의 최고치는 3400~3600포인트이다. 삼성증권이 2800~3400을 제시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최고 3480,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각각 최고 3500, 3600을 예상했다. 2021년은 고점이 3316(장중 기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5~8.6% 높아지는 셈이다. 경기 회복 둔화로 최근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의 신세계>를 펴낸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역사상 가장 심한 거품이 발생했다고 경고하며, 극심한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격적인 위기는 2022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위기가 오면 현금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금이

있으면 위기에서 자산을 싸게 살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 2022년에 뜰 산업은?

2022년을 이끌 신산업으로 가장 시선을 끄는 산업은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메타버스 산업이 주목받는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덕분이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회적 소통 욕구가 메타버스를 통해 발현되는 중이다. 데이터센터, GPU 등 하드웨어와 5G 등 통신 인프라 발전으로 더욱 현실감 있게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산업이 돋보인다. NFT는 한마디로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미술품,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시

장이 커지면서 NFT 거래소와 유동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가치평가 시스템 등 NFT 생태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관련 업종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약 224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수소 경제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정부가 하루빨리 수소 생산, 인프라 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한목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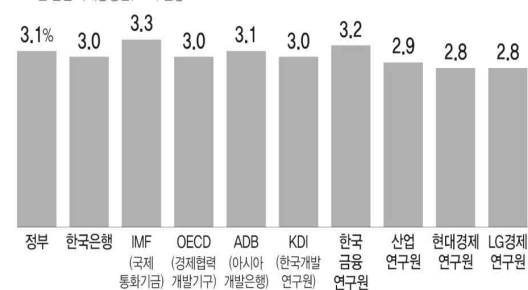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연구기관	매매시장전망	특징
주택산업연구원	전국 2.5% 상승	공급부족, 지속적 전세수요로 상승세 전망되지만 단기급상승에 따른 경계심리로 상승폭 축소될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국 2.0% 상승	보유세 인상 및 금리인상부담, 전세자금 대출 거절 등 변수 생길 경우 상승세 둔화에 영향 미칠 듯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국 5% 상승	양도세 강화로 거래물량 및 공급 감소하면서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세 유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국 3.7% 상승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로 2021년 대비 상승률 낮아질 것

자료: 각 기관

## 2022년 경제 전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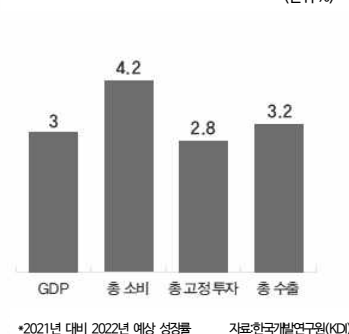
### 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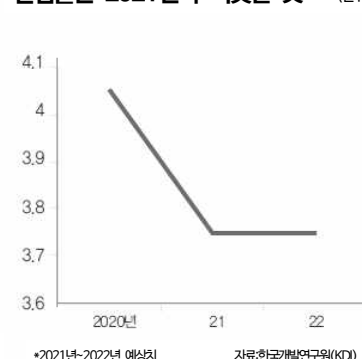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각 기관 위원

### 한국 주요 경제지표 성장 전망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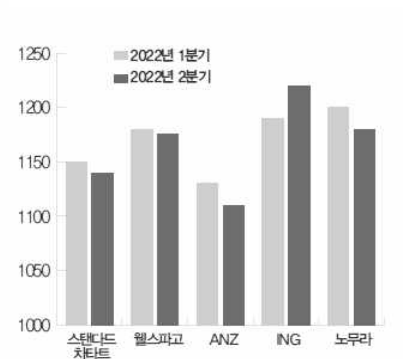
\*2021년 대비 2022년 예상 성장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 실업률은 2021년과 비슷할 듯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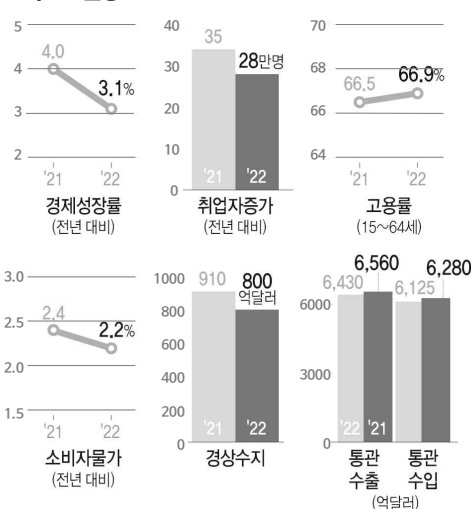
\*2021년-2022년 예상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전망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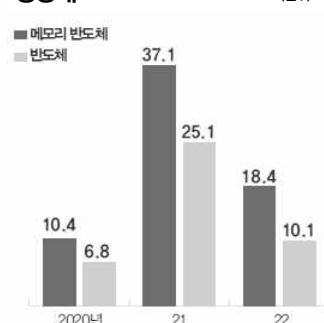
\*분기별 원·달러 환율 전망 자료: 각 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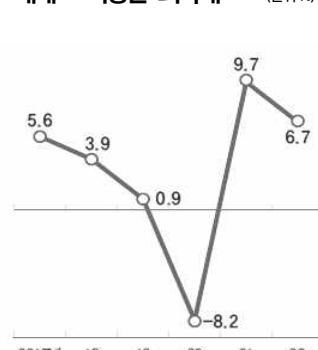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수출 핵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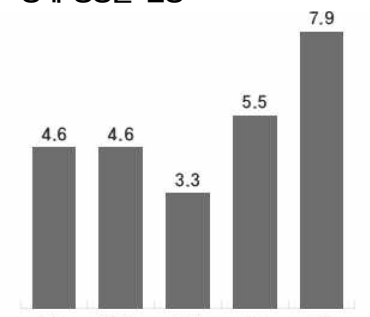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세계반도체 시장통계기구(WSTS)

### 세계 교역량은 회복세 (단위: %)



\*2021년-2022년 추정치 자료: IM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세계 주요국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년! 당신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삼중고의 인생을 살다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헨 렌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시각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 없이 말합니다.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라고.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그립니다. 새의 눈으로 전체를 위에서 보면 배치도가 나와 건물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그래서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벌레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땅만 위에서 내려보는 조류에 의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처럼 멀리 내다보는 금류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자신의 무대로 알고, 많은 영토가 먹잇감이 있는 양식장으로 활용합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흥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배신에 배신을 당한 결국을 맞이합니다만, 그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은 일본을 통일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까야라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다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겨우 3,0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다는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위해서 라기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포위를 당한 3일 후 그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적들은 장군을 중심으로 7중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다의 진중에서 한 사람이 돌격해 오니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그 사람이 오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다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 적장 이마까야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적들은 지휘관을 잃고 오히려 혼란이 되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용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런 전법은 없지만 이마까야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하고, 나는 일본의 신분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꿈을 위해 자신을 죽음의 위협에 맞상대하며 던진 ‘용기’, 이것은 그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인 2%의 창조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

에 의해 역사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이에게 콜럼버스에게처럼 ‘준비된 신대륙’을 만나게 합니다. 조물주는 자신의 비밀의 땅을, 비전을 가진 자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이른바 성공도 그가 가진 이상과 꿈이 얼마나 인류보편적이고, 공공성을 띤 것이냐에 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개역개정어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의 홈정역(K.J.V.) 그대로 읽으면 “방자하다”는 말은 “망할 것만 가려서 한다”는 뜻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만 가려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0만 명이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멋지게 연설한 마틴 루터킹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의 뜻에 근접한 꿈은 그분이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야심(DESIRE)과 비전(VISION)은 다르다고 굳이 표현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어렸을 때의 꿈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그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실제로 그 기분을 ‘음미’했을 정도였답니다. 마치 한국에도 이런 집요한 꿈을 가진 이들이 바로 양 김씨로 대변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렬한 욕구가 그들을 수많은 정치 박해에서도 견디게 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꿈이 여과되며 조물주의 꿈으로 거듭날 필터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꿈을 이룰 성공으로 이끈 강한 행동력이 그 꿈에 대한 집념에서 나온 것은 누구나 아는 애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역시 어렸을 때부터 꼭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강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4번이나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어떠한 시절을 보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가 가진 무학력과, 맨땅에서 세워온 여정은 꿈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추진력으로 단양 시멘트공장을 건설한 것이나, 바덴바덴의 기적으로 일컫는 올림픽유치는 꿈을 가진 이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981년 민간기업인으로서 최초로 정주영에게 올림픽 유치위원장이 맡겨졌을 때의 분위기는, 일본의 나고야를 이기고 한국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은 정주영 회장은 소외된 중동과 아프리카 IOC 위원들을 집중 공략하고, 정성이 담긴 꽃바구니 선물 등을 통해 한국인의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개도국이라는 한계를 약점이 아닌 개도국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강변, 강점으로 바꾼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88올림픽 개최지는 서울과 나고야가 52대 27로, 서울로 결정됩니다. 참혹할 정도로 어려웠던 한국의 경제환경에서 그가 “이봐 해봐?”는 회사 간부들을 질책하고 독려할 때 그가 자주 썼던 말입니다. 이 꿈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며, 그리고 인내하게 합니다.

한 시대의 영적 드리머(DREAMER) 故김준곤은 말합니다. “80년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새 시대의 기폭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선가 불어오는 물결에 내가 휩쓸리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명령과 그 방향과 목적대로, 전 세계를 향해 타협 없이 외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새 물결을 일으켜야겠습니다.”

그래서 김준곤의 깃발로 1974년에는 연인원 백만 명이 모여 전도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 계기가 됐던 엑스포로 '7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80세계복음화 대성회, '84세계기도 성회, 엑스포로 '85 등 한국교회의 거대한 부흥폭발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도 위대한 ‘꿈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http://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 대한민국의 미래, 누구에게 맡길까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5년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통해 어떤 후보가 우리 삶을 좀더 윤택하게 해 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포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포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공부문 통해 공급 이 중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li> <li>기본주택으로 장기임대 공공주택비율을 현5% 안되는 수준에서 10%까지 상향</li> </ul>	<div>〈부동산 정책〉</div> <div>주택공급 확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주택 250만 호 목표, 민간재개발·재건축 관련규제 풀어 도심 주요지역 주택 공급 활성화</li> <li>‘월기주택’ 30만 호 공급, ‘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보유세 도입,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근절</li> <li>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 위공직 임용·승진제한</li> <li>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등</li> </ul>	<div>세계개편/규제정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축소 다주택자는 양 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li> <li>보유세 급등 차단, 실수요자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li> <li>신혼부부와 청년층, LTV를 80%로 상향 등</li> </ul>
<p>‘전환적 공정성장’이며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전국민 대상 ‘기본 시리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신설, 연 100만원 기본소득, 무주택자 에게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하는 기본주택, 최대 1천만원 마 이너스 통장 제공하는 기본대출 등 시행</li> </ul>	<div>경제·정책/조</div>	<p>‘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 장 사다리 복원,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li> <li>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력한 신산업 육성정책,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li> <li>주 52시간을 넘어 주4일제 도입, 근로시간 더 단축</li> <li>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재정이 더 큰 역할 해야</li> </ul>	<div>국가개입/재정 역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업지원 증대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 중시, 정부 지원</li> <li>52시간 근무는 예외 조항 뒤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근로 선택</li> <li>쓰더라도 과도한 국가채무 만드는 정책은 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높여야</li> <li>공공의료 영역 강화, 의료계 종사자 처우개선</li> </ul>	<div>코로나 대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li> <li>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지급</li> <li>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 국민소화제 도입</li> <li>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검토</li> </ul>	<div>정치개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제 개혁</li> <li>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 이어 이행</li> <li>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문제 해결</li> </ul>	<div>〈외교·안보〉</div> <div>대북기조/북핵문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3자간 대화 채널 ‘상설 화’</li> <li>한미 확장 억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 복원</li> </ul>	<div>비핵화 보상/남북 경제협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 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게 하 는 것이 유능한 외교</li> <li>한일관계는 과거사·영토 문제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하나 ‘미 래지향적’ 관계 구축</li> </ul>	<div>주변 외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 한중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li> <li>한일관계는 이 후보와 같은 기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시행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의 전국 확대</li> <li>선택적 모병제 도입</li> </ul>	<div>병역정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청약 가산점 제도도입</li> <li>모병제에 부정적 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li> <li>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보호제 개편</li> </ul>	<div>여성</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 확대</li> <li>무고죄 처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학점비례 등록제</li> <li>공교육 혁신 및 평생교육시스템 확충</li> </ul>	<div>교육</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입 정시 비율 확대, 입시 비리 신고센터 등 도입</li> <li>입시 비리 확인시 대학정원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어린이집 다니 지 않는 영·유아 필요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li> <li>유치원·어린이집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추진</li> <li>어르신 방문 간호·의료서비스를 전국에서 받도록 인프라 확대</li> </ul>	<div>돌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5세 전면 무상교육,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li> <li>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li> <li>어르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 강보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 복지-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출산휴가 자동등록제</li> </ul>	<div>복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별적 복지-소상공인 선별 지원 소득세, 법인세 감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40 탄소중립 추진 – 탄소세 신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2040년 내연차 판매 중단</li> </ul>	<div>환경</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DC 전면 재검토 – 탈원전 정책 폐기, 산업계 의견 반영해 탈탄소 목표 재설정</li> </ul>

# 탈원전, 탈전력이 되어 몰아치는 세계의 혼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과연 탈원전 정책이 바른 선택인지 살펴본다.

## 탈원전이란?

탈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미국 쓰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전 가동 38개국 중 독일과 대만,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면서 우리나라도 탈원전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설을 재개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었던 원자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 탈원전,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다. 매년 40조 원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목표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친 대신 전기료는 오히려 약 67% 상승했고 전력생산도 차질을 빚어 약 30% 정도의 부족한 전력을 프랑스나 동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미미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오명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많은 공장이 전기요금에 쏘 동유럽 등으로 이전하게 돼 양질의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2050년까지 탈원전에 약 40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면적도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교해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갈탄, 무연탄)을 주연료로 삼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값도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재생에너지 대안일 수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재생에너지를 원자력 대안으로 삼으려 하지만, 간헐성과 낮은 에너지밀도 때문에 원자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간헐성이란 에너지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흐린 날에는 태양광발전이 안 된다. 바람이 안 불거나 너무 센 날에는 풍력발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20년 7월과 8월 장마 기간에 50일 내내 비가 오고 흐려 태양광발전이 무용지물이 됐던 경험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수소가 유력한 저장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생산비용이 너무 비싸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은 원자력뿐이다. 리튬전지와 같은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배터리 가격이 고가일 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기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배터리 재료(회귀금속)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재생에너지는 화력이나 원자력처럼 24시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탈원전을 선택한다면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력발전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 ‘위드 원전’이나 ‘위드아웃 원전’이나 고심 중인 세계

	국가	가동 원전 수	정책
위드 원전	미국	96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동 기한을 '최대 80년'까지 늘리는 등 원전 유지
	영국	15기	저탄소 발전전력에 적용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TT)' 대상에 원전 포함. 3기 신설 중
	프랑스	58기	70%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 선으로 낮추기로 결정. 이후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연기
	일본 (3월 현재)	9기 (전체 36기)	2011년 3·11 참사 이후 2030년대까지 탈핵 선언. 자민당 정권이 복귀한 뒤 2014년 원전 비중을 20~22%로 유지 결정
	대만	4기	2017년 1월 2025년까지 원전 정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 그해 8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이후 2018년 11월 해당 조문 삭제
위드 아웃 원전	독일	6기	2011년 3·11 참사 이후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	24기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해 장기적으로 탈원전 완성(탈원전 로드맵)하기로 선언

자료: 일본 에너지백서(2021), 한국에너지공단(2019)

다. 가스도 화석연료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특히, 가스는 채굴과 이송과정에서 메탄이 누설돼 기후변화에 석탄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보조수단으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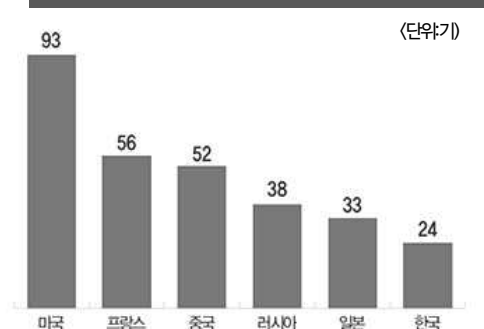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투자가 오히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하게 만드는 현상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국가별 탄소발자국(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정도)을 보면, 탈원전을 선택한 독일이 원전 중심인 프랑스의 10배나 된다. 재생에너지 투자로 석탄 의존은 줄었지만, 화석연료인 가스의존도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밀도가 낮으므로 산업공단 등에 공급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를 많이 건설해야 한다. 그만큼 많은 토지를 소모해야 한다. 에너지밀도가 낮은 데다 하루 4시간밖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태양광으로 원전 2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광패널(330W)이 1억 장 이상 필요하다. 간헐성과 낮은 에너지밀도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매우 비싸다.

## 세계는 원전 늘리려는데...

영국과 캐나다 등 40여 개국 국가들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 배출 제로인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원전 도입에 나선 지 오래고,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새 원전 150기를 추가 건설하기. 축을 위해 원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국가별 원자로 현황



\*2021년 10월 기준

자료: 국제원자력기구



# 무인 전투체계, 하늘과 땅이 무섭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무기체계 분야에 접목되면서 미래 전장은 거대자본과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변화의 양상은 무인 무기체계가 이끌고 있다. 대규모 인명살상의 정규전보다는 해역과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테러와 사이버전 등 비정규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화된 무기체계의 활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의 무인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 항공무인체계

항공분야의 궁극적인 무인 무기체계는 무인 전투기다.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 기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5세대 전투기에 이어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일본 등이 개발에 착수한 6세대 전투기는 유인기와 무인기로 구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말 그대로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조종사가 없는 무인기가 한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무인기에게 공격할 표적과 방법만 알려주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임무를 수행하고 기지로 귀환하도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 미국: XQ-58A 발키리

미 공군의 경우,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충성스러운 호위기라는 의미인 '로열 워맨'의 콘셉트에 맞춰서 개발한 무인기이다. 로열 워맨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이 제어하고, 다른 항공기와도 팀으로 작전할 수 있다. 또한 탑재된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 전방상황을 정찰감시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적과 교전도 하고, 유인전투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아울러 위협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높아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 러시아: S-70 오코호트닉-B

러시아가 개발 중인 미래형 무인전투기로 2024년 러시아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길이 14m, 날개폭 20m, 그리고 무게가 약 20톤으로 추정되는 S-70은 5세대 전투기인 Su-57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탐지범위를 확대하고, 스텔스 성능을 이용한 은밀 침투를 통해 표적 정보도 전송하는 등 Su-57 전투기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가오리-X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KF-21 보라매의 6세대 전투기로 진화 과정에

필수 무인전투기이다. 한국형 가오리-X가 최근 KF-21 보라매 전투기와 함께 정교한 비행 CG로 공개하면서 무인전투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터키의 차세대 무인전투기

2023년 첫 비행을 목표로 드론 제작사인 바이카르가 무인전투기를 개발중이다. 최대 속도 시속 800km이며, 5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5천500kg이며, 1천500kg까지 전투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차세대 무인전투기는 근접항공지원(CAS), 미사일 공세, 적 방공망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 ■ 해상무인체계

항만감시나 기뢰 제거 등 기존 수상함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재래식 유인 무기체계와 직접 교전하는 해상 무인 전투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USV를 보유한 국가이다. 시헌터는 42m 길이의 무인수상정으로, 주목적은 넓은 대양에 숨어있는 적 잠수함을 끝까지 추적하는 가장 지독한 잠수함 사냥꾼이 되는 것이다. 시헌터에는 견인형 공중 센서 시스템이라는 행글라이더 장착형 탐지 장비도 장착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미 해군은 넓은 바다의 수상과 수중 상황을 24시간 감시, 추적할 수 있다.

한국: 2017년 첫 무인수상정 해검을 공개하였다. 길이 8m, 무게 3t에 최대 속력은 30노트(시속 54km)의 해검은 자율 운항 제어와 전자, 정보기술(IT)이 적용됐다.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개발이 2024년까지 착수된다. 군집 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을 주도할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실시간 상황 인지를 할 수 있고 인간 지능과 유사한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접적해역에서 24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신속한 탐색과 대응을 할 수 있다.



## ■ 지상무인체계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은 운전석이 제거되면서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 감시장비와 센서·무인기 등을 활용해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무기를 장착해 공격도 하며,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군수물자를 수송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를 후송할 수도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한 '뮬'을 개발했고 호위 앤 호위테크놀로지는 원격조종 무장체계를 설치한 립소를 선보였다. 립소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도 투입돼 급조폭발물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러시아: 무인전투차량 '소라트니크'는 장갑궤도차량이다. 최고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으며 원격 모드에서는 10km 반경 내 조종이 가능하다. 장착 가능한 무기는 구경 7.62mm와 12.7mm 기관총, 구경 30mm 유탄발사기 등이고 최대 8기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중국: 2013년부터 중국인민해방군국방과기대학 과학자들이 모여 무인전투형 차량을 개발했다. 공격은 물론 물자나 부상 병사를 수송할 수 있는 '사막의 늑대' 시리즈다. 이 시리즈 중 하나로 인민해방군이 사용하는 오프로드 차량 '둥펑명스'를 무인화하였다.

한국: 'HR-세르파'라는 이름의 무인전투차량이 개발 완료 단계이다. 세르파는 경차보다 약간 작은 세로 2.5m, 가로 1.5m 크기로 차량 한가운데는 일반 픽업차량처럼 화물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으며, 이는 전투현장에서 탄약과 전투물자를 보급하고 환자를 후송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스라엘: 차량용 로봇 '가디엄'을 개발하고 이를 개량해 기관총을 탑재해 파쇄모형을 개발했다. 이 차량은 위험 지역에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호위하고, 원격조정으로 주변을 순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야?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차별금지법 시행한 나라들

영국은 지난 2010년부터 평등법을 시행하고 있다. 평등법은 이전에 존재하던 ‘인종관계법’, ‘성차별법’, ‘장애인차별법’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때 이 법에서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동반(동거 등)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특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선거공약에 따라 평등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평등법은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라 고용·주택·공공 편의시설·교육 등의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LGBT(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보호를 연방 민권법에 포함시켜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인권법은 “모든 개인이 다른 개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유전적 특성, 사면이 승인되었거나 기록 정지 명령이 내려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고용·숙박·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임금 등을 보장한다.

## 영국 차별금지법 피해 사례

### (1) 영국 고용재판소,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목사에게 징계는 정당”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 2014년 2월 예배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시켰다. 2014년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하였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 (2) 영국 평등법과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차별금지

영국 평등법은 성적지향을 사유로 하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한다. 따라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지원한 동성애자에게 입학할 불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재학 중 종교적 설립이념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학교가 학칙에 의한 징계나 제적 등 조치를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3) 영국 고용재판소,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2007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게이 남성이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42세의 존 래니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당했다고 결정했다. 래니 씨는 헤리포트 교구의 성공회 주교가 그에게 동성애 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교는 그에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양성애든 트랜스젠더이든 상관없이 혼인 외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원고인 래니 씨는 게이 로비 그룹인 스톤월의 지지와 재정 지원을 받아 승소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영국 성공회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레즈비언·게이 기독교인들이 공평하고 존중받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재판소는 피고 성공회 교회가 원고에게 47,000파운드(약 7,3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4) 영국 법원, “반동성애 버스 광고 불하는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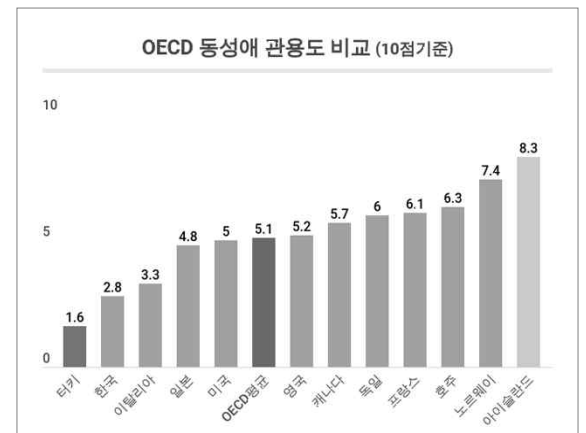
2012년에 동성애자 권리 지지 운동을 하는 Stonewall이라는 단체가 영국 런던 시내버스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이다. 인정하라!”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단체인 Core Issues Trust는 2012년 4월에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예전에 동성애자였다. 탈동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극복해라!”라는 광고를 런던 시내버스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많은 항의를 받은 후에 런던 운송회사는 탈동성애에 광고만 중단하였다. Core Issues Trust는 런던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항소 법원은 런던 운송회사의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이거나 인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 (5) 영국 초등학교의 동성애 성교육과 퀴어축제 개최

동성애 성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랫치 초등학교에서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BBC Radio Manchester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월 18일에 공개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영국 런던의 헤버스 팜 초등학교에



서는 LGBT 퀴어축제가 열렸는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다. 기독교인 학부모인 Izoduwa Adhedo Montague 씨는 학교 교장인 Susan Papas 씨를 만나 학교가 그의 자녀를 LGBT 축제에 강제로 참여시킨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2018년 10월 8일 학교 측은 Montague씨에게 회사에서 열리는 LGBT 축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리는 LGBT 축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보냈으므로 그녀의 불만을 일축하였으며, 같은 날 Montague 씨의 5살짜리 아들을 방과 후 3시간 동안 학교에 남아있게 하였고, 다음날 역시 1시간 동안 남아있게 하였다. Montague 씨는 아들의 치료문제로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학교 측은 그녀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학교의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에 그녀와 그의 남편은 그 날부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LGBT 축제를 반대하는 학부모는 성차별 혐오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Montague 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학부모의 변호를 담당한 기독교법률센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LGBT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LGBT축제에 대해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쫓겨날 것이 두려워 언론에 말하기를 꺼린다”고 언급하였다.

### (6) 영국 성전환 아동·청소년 10년간 25배 이상 증가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된 외국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시킨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CBNNEWS.COM은 2018년 9월 19일자 기사에서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청소년들이 4,000%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 HMR, 코로나가 바꾼 식생활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의 머리글자로, 일종의 인스턴트식품(즉석식품)이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의 식사를 대체할 수 있고 구입 후 간단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음식을 말한다. 이런 가정간편식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세계 간편식 시장 규모



## HMR 주요이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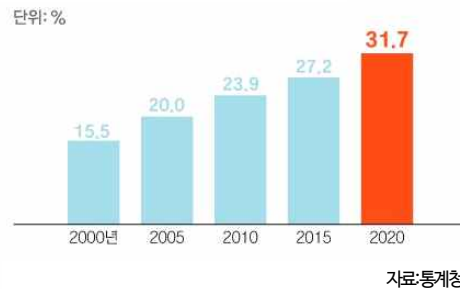
## 밀키트 시장 규모



## HMR 구매 이유



## 늘어나는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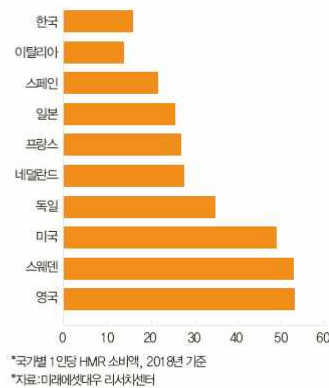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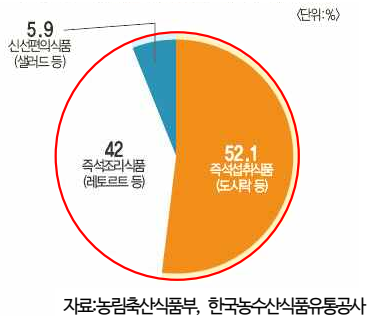


## HMR 시장규모



## 향후에도 성장 여력 충분

### 가장 인기 많은 유형은 즉석섭취식품



## 변화 거듭해온 HMR 제품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시기	198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13년	2013~2014년	2015~2018년
키워드	편의성	신선한, 냉장·냉동 제품	다양성, 다변화	프리미엄 일상식
주요 제품	즉석밥 3분요리	냉장 식품, 냉동 만두	컵밥, 국탕찌개 한식반찬	유통업체 PB 컬래버레이션

## 가정 간편식의 종류와 형태



### 즉석섭취식품 (RTE: Ready to Eat)

즉석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음식  
ex)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샐러드 등



### 즉석조리(완조리)식품 (RTH: Ready to Heat)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단시간 데운 후 섭취 가능한 음식  
ex) 즉석밥, 즉석죽, 레토르트 제품 등



### 즉석조리(반조리)식품 (RTC: Ready to Cook)

상대적으로 장시간 데우거나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친 후 섭취 가능한 음식  
ex) 냉동만두, 냉동돈가스, 냉동 볶음밥 등



### 신선편의 식재료(Meal Kit) (RTP: Ready to Prepare)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레시피가 동봉되어 있는 제품  
ex) 찌개 키트, 나물 키트 등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국내외 주요 HMR 기업





# 어떻게 인종들이 달라졌는가?

##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기원

단지 하나의 인종이 있다. 그것은 사람 인종이다. 오늘날 ‘인종(race)’이란 단어는 피부색, 눈 모양, 머리 카락 등의 육체적 특성이 구별되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는 늦은 1800년대에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일어났다. 육체적 특성과 관련된 인종이란 단어는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대신 ‘민족(nation)’이란 단어는 200번 이상 사용되어 있다. 인종이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아이디어이다. 비록 특성들이 폭넓게 다양하다 하더라도, 소위 인종 사이의 유전적 분자적 변이는 사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간의 변이는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생명체의 각 종들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유전자들은 후손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들을 허락한다. 이러한 설계된 특성이 없었다면, 멸종은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다음의 3가지 메커니즘은 아마도 대부분의 ‘인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홍수 이후인 대략 5000년 동안에 일어났다.

### 1. 자연선택

잘 확립된 현상인 자연선택은 비록 그것이 소진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1세기 동안의 실험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진화의 메커니즘은 아니다. 자연선택은 부모의 어떤 유전자들이 후대에서 여과되는 현상으로,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유전적 변이가 매우 적은 후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적도 근처에 사는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위험에 더 민감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생식 가능한 시기까지 살아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밝은색의 피부색 유전자를 전달할 기회를 적게 가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태양 빛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서 형성되는 비타민 D3의 결핍 가능성이 크다. 극지방에서 이것은 구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세대가 지난 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적도지방 근처에서, 흰 피부의 사람들은 고위도 지방 근처에서 많아졌을 것이다. 예외도 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북극의 위도에 산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 음식에는 많은 비타민 D3를 포함하고 있는 물고기-간 기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구루병을 예방했을 것이다.

### 2. 문화적 선호

**중요함.**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화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종족 계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거위들에서 확인되었다. 파란 눈 거위는 북극의 한 지역에서 산다. 그리고 하얀 눈 거위는 또 다른 지역에서 산다. 각 집단의 알들이 한 부란기에서 부화 되었다. 거위 새끼들은 반대 색을 가진 부모들에게 입양되어 키워졌다. 어린 거위들은 후에 자라서 양부모의 색깔을 가진 거위들과 짝지으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살아함.** 사람들은 편견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매우 심하다. 육체적 모습에 기초한 편견은 전쟁, 학살, 강제 격리, 자발적 분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들과 몇몇 인종에 대해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리안 종족에 대해 극도의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히틀러의 인종에 대한 극도의 편견은 유대인 종족의 감소와 아리안 종족의 증가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 3. 소수의 고립된 인구집단들

전체 인구집단, 또는 여러 생물체의 전체 집단은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집단 내에 가지고 있다. 만약 이 집단에서 소수가 고립된 지역으로 (예로 섬과 같은) 이동되었다면, 새로운 그룹은 전체 집단보다 매우 적은 유전적 특징(또는 유전형질의 적은 범위)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세대가 흐른 후, 섬에는 원래의 집단과는 다른 종족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리석(반은 흰색, 반은 검정색)으로 채워진 통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각 대리석이 사람을 나타내며, 대리석의 색깔은 사람의 피부 색깔에 대한 유전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자. 만약 일부의 대리석이 무작위로 취해져서 격리된 섬들에 놓인다면, 그 섬들은 한 색깔의 대리석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 이 과정에 대한 유전학은 이러한 간단한 설명보다는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면,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의 유전자가 관여한다. 또한 수 천의 종족들이 있다. 작은 그룹들이 큰 집단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들의 각각은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서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특성들이 쉽게 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 후 여덟 명의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 흩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창세기 10-11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후손들의 목록에서부터, 우리는 초기의 이동 형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셈의 직계 후손들은 일반적

첫째 열 왼쪽부터 일본, 티베트, 보르네오, 네덜란드, 둘째 열은 아일랜드, 중국, 르완다, 한국, 셋째 열은 뉴질랜드, 발리, 오키나와, 이스라엘, 넷째 열은 미국, 호주, 인도, 이집트, 다섯째 열은 몰루카, 캐나다, 그리스, 과테말라인의 얼굴들이다.



으로 아라랏산 근처(오늘날의 터키 동쪽)에 머물렀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했다. 함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이동했다. 반면에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으로 이동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작은 그룹들이 고립된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발현되었을 것이다. 이 3가지 메커니즘(자연선택, 문화적 선호, 고립된 인구집단)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을까? 분명히 그들의 유전자는 오늘날 모든 종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의 대부분은 물론 보여지지(발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유전자들이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중간의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담의 히브리어 말은 ‘붉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붉은(red)’, ‘피를 보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피부색은 미국 인디언의 피부색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0여 년 동안 진화론은 매우 다른 한 그림을 그려왔다. 사람들의 조상은 원숭이 같은 모습일 것으로 추정해왔다. 진화론에 의하면, 일부의 초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가지가 분리되어서, 그들이 다른 육체적, 정신적, 행동적 특성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매우 편견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인종 우월주의인 것이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을 인종 우월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은 인종 우월주의자였지만). 인종 우월주의는 오늘날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대중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진화론은 인종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공해 왔다.

창세기는 상당히 다른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의 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 사촌이라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행동한다면, 세계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 것이다.

<자료: 창조과학회 제공>





## 열반의 다이제스트

### 칠레,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칠레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선 찬성 21표와 반대 8표, 하원에선 찬성 82표와 반대 20표를 얻으며 양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칠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31번째 국가가 됐다.

칠레는 가톨릭 인구가 다수인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 지난 2004년 이혼이 합법화됐고 2017년이 되어서야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기 시작했다.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입양, 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시민결합법'은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2015년에서야 의회를 겨우 통과했다. 하지만 '시민결합' 상태인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성 커플들은 이제야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고,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됐다.

### 이집트 기독교인 학생, 십자가 펜던트 착용 폭행 당해

이집트 콥트교 신자들은 종종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거나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지만 이즈벳 베쉬리 지역에 위치한 알-타와라 학교 교장은 모든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그러한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콥트교 학생들이 장신구 제거를 거부하자 동료 학생들과 교사들이 폭행하였다고 국제기독교연대(ICC)가 전했다. ICC에 따르면 한 여교사는 기독교인 남학생을 공격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고 그의 십자가 펜던트를 빼앗아 부었다고 한다. 콥트족은 이집트 인구의 10%를 차지하며, 1세기 초 기독교로 개종한 고대 이집트인 혈통의 후손이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이집트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20개 국가 중 하나로 기독교 여성들이 거리를 걷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기독교 공동체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택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 日 도쿄,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 인정

일본 도쿄는 성 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다. 동성 커플이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함께 살 집을 임대하고 병원 입원 시 면회권을 얻는 등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입 시기는 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이다. 이번 도쿄의 조례 제정은 일본 각지를 비롯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동성 부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성 소수자 커플들이 세금 등 생활상의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삿포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성 소수자들이 낸 소송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 北, 영화 '아저씨' 시청 중학생 '징역14년'

북한의 한 중학생이 영화 '아저씨'를 본 지 5분 만에 단속에 적발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조선(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사실을 인정한 북한 당국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하여 외국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과 그 가족까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로 체포해 가두고 있다.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 이를 구매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 등의 중형을 받았다.

## 나홀로 가구 늘어나지만, 삶의 질 하락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2092만7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체 가구(240만 원)의 55.0% 수준이었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주거·수도·광열과 음식·숙박, 주류·담배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는 소형주택에 사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6.2㎡로 전

체 가구 평균 주거면적 68.9㎡의 67.1% 수준이었다. 1인 가구는 42.4%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18.1%는 소득에, 14.9%는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만족했으며,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6.7%p 증가했으나 소비 생활 만족도는 1.3%p 감소했다.

## 올해 옥스퍼드영어사전에 등재될 한국어는?

2021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 우리말 26개가 새롭게 등재됐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대표적으로 1976년에 '김치'(Kimchi)와 '막걸리'(Makgeolli)부터 '온돌'(Ondol) 등을 포함해 45년간 우리나라가 기원인 20여 개의 단어를 수록했는데, 2021년 26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되며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 등재된 단어를 보면 '대박'(deabak), '떡방'(mukbang), '누나'(noona), '오빠'(oppa), '언니'(unni) 등 비교적 최근의 한국문화를 반

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가 결합돼 새로운 형태, 의미를 지닌 단어들도 포함돼 있다. 말 그대로 '콩글리시'가 이에 해당된다. 동사 '싸우다 Fight'에 접미사 '-ing'를 덧붙인 'Finghting'은 우리나라에서 격려, 지지하는 감탄사 등으로 쓰인다. '스킨십'이라는 단어는 '피부 Skin'과 접미사 '-ship'의 합성어로, 부모와 자식, 연인, 친구 사이에 신체 접촉, 밀접한 애정 표현으로 정서적 유대 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 MZ세대, 네이버블로그 활성화 견인

지난 2003년 출시돼 올해로 19살을 맞은 네이버 블로그가 MZ세대의 일상 기록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외산 소셜미디어에 밀려 입지가 줄던 네이버 블로그는 올 한해 콘텐츠 수가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일상 확대와 네이버의 콘텐츠 포맷 추가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MZ세대의 하

루를 블로그로 기록하는 것을 토대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슈와 키워드는 '맛집', '일상', '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테마가 순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2030 세대 사이 '재테크',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 '클럽하우스', '도지코인', 'MBTI', '오징어게임' 등도 올 한 해 관심 있게 다뤄진 주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 K-방역, 과연 성공인가?

한때 K-방역이라고 자랑하던 한국의 방역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12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상황 악화 시, 일일 확진자 숫자는 향후 1만 명, 중환자 수는 최대 1900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의료붕괴에 처해 있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주요 선진국가들 중 코로나19 사망자 및 확진자 숫자에 있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재일 학자가 분석한 내용을 발췌했다.

## K-방역과 J-방역의 차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의료전문가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나마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것으로는 첫째, 전파력과 치명률이 매우 높다. 둘째, 잠복기가 길어서 무증상 전파가 많다. 셋째, 다행히 대부분 감염자는 무증상 내지 경증에 그치고 일부 환자만이 중증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일본은 대량검사 대신 완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우선 PCR검사를 위한 사례 정의 기준이 비교적 높게 설정됐다. 패닉에 빠진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에 쇄도하는 것을 막고, 의료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동시에 자칫 있을 수 있는 의료진 대량 감염 사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수요 폭증을 의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할 ‘의료붕괴’와 ‘대량사망’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검사량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판별해내고 이들을 격리 상태하에서 치료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PCR검사에는 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본에는 대량검사를 시행할 장비와 시약이 부족해서 의료기관에 사람이 몰려도 PCR검사를 대규모로 시행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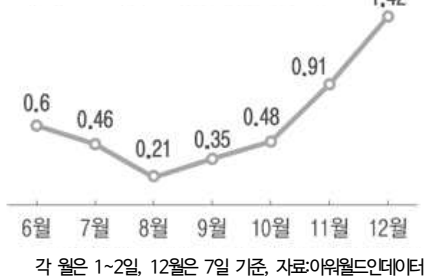
더 근본적인 문제는 PCR검사의 부정확성이다.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로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PCR검사에서는 2% 내지 30%의 확률로 ‘위음성’ 결과가 나온다. 즉 실제로는 감염되었는데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자 대량사망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대량검사가 아닌 중증환자에게 집중하는 선택적 검사를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우리나라가 선택한 전략은 3T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대량검사(Test), 접촉추적(Trace), 신속격리와 치료(Treat)이다. 대량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밀

한국과 G7 국가 코로나19 치명률 (단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단위=%)



접촉추적자들까지 찾아낸다. 그리고 확진자와 그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의료적 처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대량검사는 얼핏 좋은 전략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위험하면서도 비효율적이다.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의료자원이 낭비될 수 있고, 대량검사 과정 자체가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량검사 결과 파악된 확진자들에 대한 적절한 격리 및 치료 공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의료붕괴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PCR검사량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감염병 확산 현황의 정확한 파악 못지 않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대량감염의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 감염 현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PCR검사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최적의 검사량인가? 결국 우리의 목표는 PCR검사의 비용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현황 파악에 필요한 만큼의 PCR검사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달리 초기 완화 전략을 선택한 것은 일본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 간 협의의 결과이다. 진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대량감염이라는 위험 회피, 사회경제활동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완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고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PCR검사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반면 K방역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의 주도적 정책 대응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K방역은 J방역과 달리 ‘인권 감수성’을 결여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마저도 K방역이 여타 국가에 이식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다. K방역이 갖는 인권침해적 속성 때문이다.

K방역은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이동 동선을 비롯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대중에게 공표했다. 더욱이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를 격리와 감시에 활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 신용카드 내역, CCTV 영상, GPS 정보 등이 확진자 추적이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됐다. 확진자 추적을 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전자 정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은 그 예가 드물다. 선진산업국가들 중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 신용카드 내역, CCTV 영상, GPS 정보까지 감염자 추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은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더욱이 정부의 격리 명령이나 입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심지어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많은 한국인이 격리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처벌받았다.

이런 식의 제도는 일본은 물론 유럽과 북미의 민주국가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권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으로는 이런 식의 정책은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에서 K방역 식의 전략을 채택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인해 논의 단계에서 좌절되었다.



## 추울수록 관절을 지켜라

겨울에는 날씨가 쌀쌀하고 춥기 때문에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겨울엔 관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겨울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1. 엉덩이쪽 뼈가 쑤신다.

- 무릎이 아파 걸음걸이에 이상을 보인다.
  - 발목 관절에 통증이 있어 걷기 힘들다.
  - 어깨가 빠근하거나 손가락 끝에 통증이 있다.
- 이외에도 고관절, 팔꿈치 등에서도 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 관절에 좋은 음식

1. 치즈와 우유 등 유제품: 유제품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 준다.

- 사과: 활성산소 생성 억제 성분이 들어있다.
- 등푸른 생선: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 통증을 줄여준다.
- 아몬드: 아몬드의 비타민E는 신체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준다.
- 토마토: 관절염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다.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준다.
- 강황: 커큐민 성분으로 항 염증 작용을 한다.

# 구원받는 회심의 사건: 즉각적인가, 점진적인가?

한국의 대표적인 연예기획사 JYP의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간증문’을 공개해 교계 안팎에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간증문에서 그는 즉각적인 한 번의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한 번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실제로 구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가 공개한 간증의 내용이 구원과적 구원관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팩트가 중요하다.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은 온전한 회심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기독교의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성경적인 회심의 핵심 요소 일곱 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 가수 박진영 씨의 구원간증문에 나타난 회심에 대한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 하나를 성경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구원의 전부인가?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라는 말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니 그전에도 논리적으로 알았지만, 마음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느껴졌다.”

박진영 씨는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지독한 운이 따라 켜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그러한 운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신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찾다가 기독교의 성경만이 창조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성경이 진실한가에 대해 탐구해 나갔다. 성경에 하나라도 틀린 예언이 있다면 가짜일 거라는 전제 아래 예루살렘에서 두 달을 보내면서까지 성경의 허점을 찾았지만 실패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읽다가 속죄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구원파의 구원 공식과 거의 일치한다.

구원파가 중시하는 속죄의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은 신학적으로 칭의의 단계에 있는 회심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회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어떤 믿음 체계나 진술과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건, 곧 회심은 즉각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이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온다”고 말한다. 즉각적인 체험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라도 그것은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회심의 목표는 죄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개신교 역시 이 칭의 단계의 회심이 구원의 전부인 양 오해해 온 것은 사실이다.

## 죄 사함을 깨닫고 나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가?

박진영 씨는 자신의 간증문에서, “난 이제 백보좌 심판에 가지 않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아니 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속죄의 객관적 사실을 깨닫고 단번에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뉘앙스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이 단번에 이뤄졌다는 진리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단번의 회심’을 구원의 유일무이한 효력으로 삼으려는 구원파적 구원관이 이 대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회심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축해야 하지만, 우리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이제 우리의 전 존재가 죄에 맞설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이미 우리 죄가 모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보다는 우리 존재가 죄와 맞서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에 고백을 통해서야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신 자세와 마음 자세로 돌아가게 된다는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자가 인용한 존 웨슬리의 말은 구원파의 즉각적인 회심에 대한 강조를 무색케 한다.

예수님과 올바르게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성경적인 회심관은 자연스럽게 지칭의의 요소를 골고루 중시하게 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온전한 회심의 일곱 가지 얼굴로 믿음(지적 요소), 회개(참회의 요소),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결단과 충성과 헌신(의지적 요소)을 내적 요소로 분류하고, 물세례(성례적 요소), 성령을 선물로 받음(은사적 요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공동체적 요소)을 오적 요소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회심의 일곱 가지 요소들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따로 떼어 놓을 수 없고 서로 강화시켜 주며,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요소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요소의 필요성에 직면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특정 구절만을 들어 성경적인 회심의 전체 그림을

축소해서 이해하거나 제시하려는 태도는 지양하는 게 좋다.

## 회심을 일회성의 과거사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

온전한 회심의 일곱 가지 요소들은 어거스틴이나 로울리, 존 웨슬리, 도로시 데이와 같은 영적 거장들의 장기간에 걸친 회심의 여정이 담긴 이 책의 전반부에도 암시되고, 저자가 신앙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회심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서도 예시된다. 교회사적으로는 행함을 강조한 베네딕트 수도회의 전통과 즉각적 구원을 강조한 개혁주의 전통 그리고 성령 세례에 의한 변화를 강조한 성결-오순절 전통을 소개하면서 성경적인 회심의 요소들을 추적했다. 저자는 이 모든 요소는 회심의 목표를 점진적인 영적 변화와 성숙에 둘 때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하고 결정적인 회심만 강조하다 보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들과 성숙의 과정을 무시하기 쉽다는 사실은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에서 얻어야 할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저자는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가 회심의 첫 단계를 각 사람이 의지적 결단에 따라 제단 초청에 응하는 정도만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이후의 성화 과정에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한 사례도 소개하는데, 복음주의 개신교는 찰스 피니의 ‘회심 패키지’를 절반만 받아들여 회심의 첫 단계를 제단 초청이나 영접 기도 정도로 손쉽게 채택한 반면, 그 이후 철저한 성화의 삶은 찰스 피니가 중시한 만큼 강조하지 않은 부분을 맹점으로 꼽았다.

말씀에 대한 단번의 영적 깨달음도 회심의 한 단계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자기 체험에 기반을 두고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절대시하면서 각자의 기질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회개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심에 두는 점진적인 과정으로서의 전인적인 회심을 무시한다면, 전반적으로 왜곡된 구원관을 낳을 수 있다.

복음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여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율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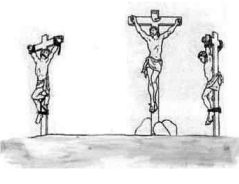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락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3		4		5		6
2	2			4	7		9	
							7	10
	9		13			6	8	
19			10		14			
15	18				12	15		11
	14	17		16			8	12
		13						

가로문제

1.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
2.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좋은 품질
4.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5. 얼굴에 주름이나 살의 모양이 심술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성숙한 남자의 코밑이나 턱 또는 뺨 언저리에 난 털
7.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하는 곳
8.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9. 진공 유리관 속에 형광 물질인 수은이나 아르곤을 조금 넣고 안쪽 벽에 형광 도료를 칠한 방전등의 하나
10. 집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
11. 살갓을 바늘로 찢어서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김
12. 해가 질 무렵의 해
13. 연말에 그해의 모든 괴로웠던 일들을 잊자는 뜻으로 베푸는 연회
14.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움
15.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16. 미래 창조 과학부에 소속되어, 우편물을 우체통에서 거두어 모으고, 받을 대상자에게 배달하는 사람

세로문제

1. 배가 와서 닿는 곳
2.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
3. 울이 매우 가느다란 실
4. 마을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5. 심장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부풀었다 하는 운동
6.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7. 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
8. 천이나 머리카락 따위에 염료를 써서 물을 들임
9. 종교의 발생지이거나 종교적인 유적이 남아 있는 곳
10. 옹으니 그르니 하며 서로 다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지난 12월호 정답입니다>

탄	소	중	립		주	름	살		
탄				금	연		생	트	집
대	장	부		일			부		들
로		침	소	봉	대			놀	이
	안	개			통	성	명		
	전		불	호	령		함	구	령
	사	장		들		신		세	
재	고			갑	근	세		주	먹
봉		필	승		저	새		통	
사	춘	기			당	일	치	기	

- 정답은 2022년 3월호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010-7152-4460)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 블레싱 전도축제 ■ 11월 28일 ■

“아이야, 가족과 함께 가자”



## 세이레 기도회 ■ 11월 29일~12월 18일 ■

“왕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



▶ 박인용 담임목사



▶ 이병욱장로



▶ 축복목장-계양목장



▶ 축복목장-초등부

프리성탄절  
발표회



▶ 영아부



▶ 유치부



▶ 중고등부



▶ 초청왕-김선원 자매



▶ 인도자상-김미경 권사

◀ 블레싱  
전도축제시상  
유년부 ▶  
달란트시상



다드림예배  
-계양목장  
-글로벌병원



이웃초청콘서트  
부천아버지  
합창단





## “성경통독,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삼산1목장  
최매자권사

‘신약통독’을 이틀 동안 진행한다는 주보 광고 후 등록을 맡은 권사님의 부름에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했다. 성경은 1년에 4독을 목표로 매일 20쪽씩 읽으려고 작정하였지만 밀리기도 하고 해서 몰아서 읽기도 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지만 특별한 노력 없이 몰라도 읽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교회 이전 후 새성전에서 처음 통독하는 것이고, 코로나19로 공동체 모임이나 교제가 거의 없다가 함께 하는 통독시간이 은근 기대되었다.

통독 첫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통독시간에 맞추려니 마음이 바빠졌다. 오랜만에 알람의 도움을 받고 아침 기도, QT 등을 마치고 가까스로 9시 30분 교회 4층에 오르니 지하 1층 분당과 다르게 창밖의 시원한 전망이 너무

좋았다. 날씨 또한 청명하고 담당목사님과 낮익은 분들이 몇몇 보이니 반가웠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짜여진 시간, 일정표와 신약성경의 구분점과 강조점, 바울서신이 기록된 시기별로 기록 장소와 목적 등이 자세히 적힌 유인물, 1분의 오차 없이 찬양과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장은 최성훈 목사님이 읽고 2장부터 녹음된 남녀 성우의 목소리로 3장 정도 교대로 나오는 말씀이 잘 들렸다. 분량에 따라 70분, 50분, 60분 읽고 휴식은 10분씩, 점심시간 40분이었다. 이어 동선화 전도사님, 최승진 전도사님, 정영화 목사님이 주어진 시간에 오셔서 첫 장을 읽어주셨다.

교역자분들 모두 함께 해 주시니 더 좋았다. 쉬는 시간 10분은 짧지만 간식 매니저 윤예숙 권사님이 준비한 갖가지 차와 에너지 보충을 위한 초콜릿,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함께한 분들과의 교제는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이 하

나씩 해소되는 시간이었다.

점심은 안병숙 권사님이 주문해 온 따뜻한 고추장 비빔밥, 된장 비빔밥, 몇 가지 컵라면은 비록 방역수칙으로 인해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다. 고개만 돌리면 맑은 가을 날씨와 풍경이 좋아서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조금씩 나누어 읽던 말씀을 하루 동안에 4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그 흐름을 한꺼번에 들으니, 뭔가 큰일을 해낸 느낌마저 들었다. 특별히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온종일 성경 말씀으로 집중한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둘째 날, 서둘러 안경을 두고 왔다. 9시 30분 첫날과 같이 찬양, 기도 후 로마서부터 백요한 목사님이 첫 장을 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안경 없이도 큰 불편 없이 눈이 피곤치 않아서 감사하였다. 이틀씩 오래 앉아 있으니 집에서 자유로웠던 때보다 조금 힘들었지만, 주께서 힘주시니 마귀가 물려갔

지 신약 통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가 더 컸다.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여서 더 힘이 났다.

백요한 목사님께서 시작 또는 말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경책의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하시며 그리스도의 법, 구원의 확신, 산상수훈 등 필히 암송할 구절과 참고할 주석 등을 소개해 주셨다. 구약은 메시아를 향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셨다. 이틀 동안에 주신 말씀. 그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큰 기쁨이 있을까?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함께 들은 성경통독이 새롭게 큰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그 시간이 참 감사하다.

###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http://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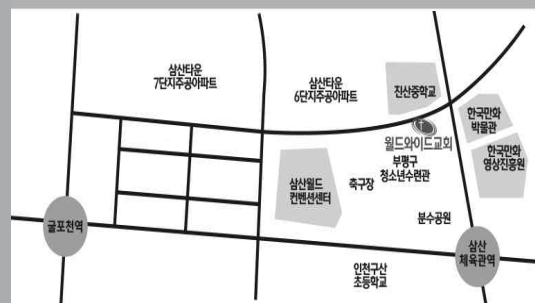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분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분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분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분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분당
국제 지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주소:(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전화: 032)501-9686~7  
•Fax: 032)503-9686  
•http://www.wwch.or.kr



## 2022 동계 '주님의 영웅' Revival Hero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22

# 이시대의 Be a David! 나도 영웅이 되리라!

## 2022. 2.17(목)-19(토)

목,금 (오후 8시), 토 (오전 9시30분)

월드와이드교회 본당 (삼산동 체육관로82, 삼산체육관역)

등록비: 1만원 (1월말까지 청년, 청소년 사전등록 5,000원)

### 강사진

17



이진황 목사  
(드림교회 부목사)  
[하나님의 음성듣기] 저자

18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미션)  
(전) 명지대 교목

19



이만석 선교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 대책위원장

19



김재동 목사  
(하늘교회)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저자

문의 : 백요한 목사 (010-2792-2427)  
지혜인 회종 (010-7584-1965)  
월드와이드교회 (032-501-9686)



월드와이드미션